



이코노미스트 / 국내 경제, 환율 **문정희**  
02-6114-2097 jhmoon1106@kbfq.com

# 국내 9월 수출입 (잠정)

## 551억 달러, 월간 기준으로 최고 기록

- ✓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품목의 호조 주요인
- ✓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의 수출증가도 지속
- ✓ 10월 수출은 추석 연휴, 4분기 기저효과 상쇄로 둔화 예상

### ▶ 9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월간으로 최고치 기록

9월 통관기준 수출총액은 551억 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35% 증가했다. 9월 수입총액은 413.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1.7% 증가했다 (표지 그림). 9월 수출입은 시장 예상치 및 KB증권 전망치를 모두 큰 폭으로 상회했다 (그림 2). 9월 중 무역수지 또한 월간으로 최대치인 137.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68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 (그림 3). 일평균 수출액도 23.5억 달러로 사상 처음 23억 달러를 상회했다 (그림 4).

### ▶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품목이 호조

9월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기록한 것은 주력품목 수출이 단가 상승과 물량 증가의 이중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전월에 이어 또 다시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8월 87.6억 달러에서 9월 96.9억 달러로 더 늘어났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서버당 D램 탑재용량 확대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철강수출은 중국 설비감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07.2% 증가했으며, 석유류 수출은 유가 상승과 미국의 설비가동 중단 등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그림 2,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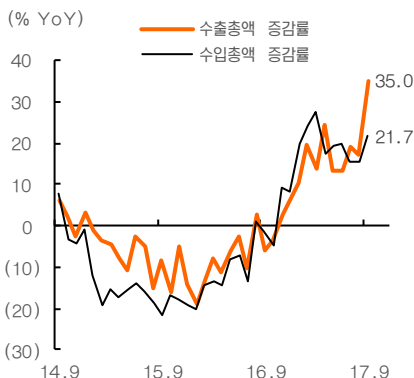
### ▶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증가도 지속

지역별 수출도 양호했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3.4% 증가했다. 선진국으로의 수출 중 미국 (28.9%)과 유럽 (23.0%)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아세안, 중남미,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철강 및 자동차 등이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을 주도했다 (그림 6).

### ▶ 10월 및 4분기 수출입은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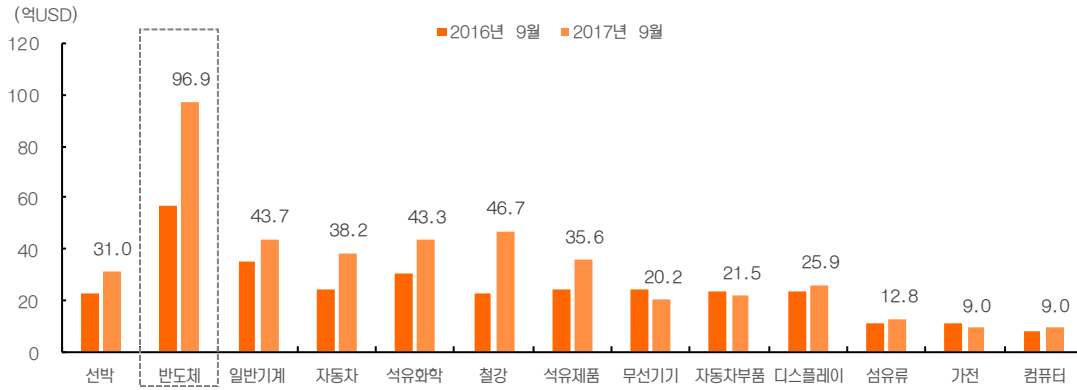
이와 같은 9월의 사상 최고의 수출에는 추석효과도 있었다. 전년도 추석연휴는 9월이었기에 금년 9월 조업일수가 2.5일 늘었으며, 금년 10월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 등이 9월에 조기 통관된 영향도 있었다. KB증권은 10월 수출이 주력품목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18일)가 지난 9월보다 5.5일, 전년 10월보다는 4.5일 적은 관계로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4분기 수출은 10월 수출감소 영향과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증가세가 3.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수출도 2017년의 수출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7).

9월 통관기준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5.0% 증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9월 수출입 동향 (잠정)' (2017.10.1)

그림 1. 13대 주력품목의 2017년 9월 수출 동향 - 반도체, 철강, 석화 등 대부분의 품목 수출이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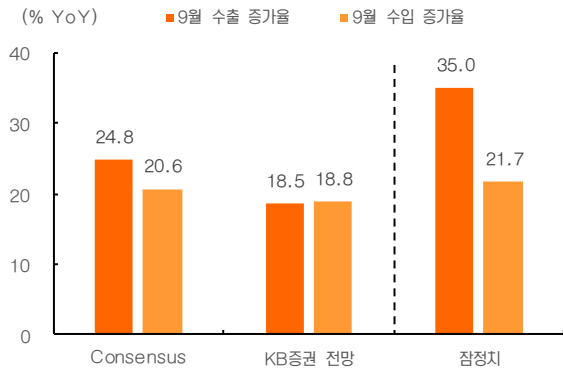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9월 수출입 동향 (잠정)' (2017.10.1), KB증권

표 1. 13대 품목별 9월 수출증감 요인 분석

13대 품목 (% YoY)	수출증감 요인
<b>선박 (38.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드림십 1척 포함 총 21척 수출 및 전년도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li> <li>* 수출증감률 (%): ('17.5) 27.3 → (6) 43.1 → (7) 208.2 → (8) △25.8 → (9) 38.7</li> </ul>
<b>반도체 (7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속으로 가격안정세 유지</li> <li>(물량) 신규 스마트폰 출시 및 서버당 D램 탑재용량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견조한 실적 유지</li> <li>* D램 공급초과율 (%): (2Q17) △4.4 → (3Q17) △6.5 * NAND 공급초과율 (%): (2Q17) △3.5 → (3Q17) △2.7</li> </ul>
<b>일반기계 (25.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건설 및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 공작기계 중심으로 수출 증가</li> <li>* 수출증감률 (%): ('17.5) 4.3 → (6) 13.9 → (7) 1.9 → (8) 14.8 → (9) 25.5</li> </ul>
<b>자동차 (57.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파업에 따른 기저효과, 4분기 파업재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생산확대로 미국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증가</li> <li>* 권역별 수출 (9.1~9.20, 억달러, 전년비): (미국) 6.3 (56.2%), (EU) 4.2 (181.3%), (중남미) 1.3 (22.3%), (중동) 1.6 (4.3%)</li> </ul>
<b>석유화학 (41.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가 상승 및 미국 일부설비 가동중단에 따른 단가 상승, 신증설 설비가동에 따른 물량 확대</li> <li>* 수출단가 (달러/톤): ('16.9) 1,061 → ('17.9P) 1,175 (9.9%)</li> <li>* 주요 시장인 중국, ASEAN, 미국, EU 등으로의 수출 증가</li> </ul>
<b>철강 (107.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설비감축에 따른 철강재 수출단가 상승, 프로젝트성 철구조물 수출 확대</li> <li>* 철강재 수출단가 (달러, 전년비): ('17.7) 860 (17%) → (8) 838 (14.6%) → (9P) 845 (14.7%)</li> <li>* 권역별 수출 (9.1~20, 억달러, 전년비): (인도) 1.0 (43.4%), (일본) 1.9 (16.8%), (미국) 1.3 (31.4%), (ASEAN) 3.0 (30.7%), (EU) 1.4 (34.3%)</li> </ul>
<b>석유제품 (46.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보수에도 불구하고 추가계약 체결로 수출물량 소폭 증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li> <li>* 수출물량 (만배럴): ('16.9) 4,574 → ('17.9P) 4,658 (1.8%)</li> <li>* 수출단가 (달러/배럴): ('16.9) 52.1 → ('17.9P) 60.0 (15.2%)</li> </ul>
<b>무선기기 (-15.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력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등 해외거점 생산 확대, 경쟁제품 출시 예정에 따른 수출 감소</li> <li>* 휴대폰 완제품 수출 증감률 (%): ('16.9) △44.8 → ('17.9) 41.8</li> <li>* 휴대폰 부분품 수출 증감률 (%): ('16.9) △22.4 → ('17.9) △31.9</li> </ul>
<b>자동차부품 (-6.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중국 등 주요 완성차 시장에서 판매 부진, 현지부품조달 증가 등으로 수출 감소</li> <li>* 증감률 (%): ('17.4) △10.5 → (5) △12.6 → (6) △12.6 → (7) △13.3 → (8) △0.04 → (9) △6.4</li> </ul>
<b>디스플레이 (10.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CD는 우리기업의 OLED 중심 전환에 따른 출하량 축소로 감소한 반면, OLED는 모바일용 중심으로 수요 확대, 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li> <li>* LCD 출하량 (백만개): ('16.9) 37.3 → ('17.9) 28.7 (△22.9%)</li> <li>* OLED 출하량 (달러): [스마트폰]('16.9) 33 → ('17.9) 41, [TV] ('16.9) 0.1 → ('17.9) 0.15</li> </ul>
<b>섬유류 (14.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의류경기 회복 지연 및 수출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10월 장기연휴 대비 조기선적 및 화석사 호조로 수출증가</li> <li>* 최대 수출시장인 베트남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주요지역 수출 증가</li> </ul>
<b>가전 (-15.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수기 수요 증가 등 프리미엄 제품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지 생산확대에 따른 TV 부품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li> <li>* TV부품 수출 (억달러): ('16.9) 2.4 → ('17.9) 0.6 (△76.9%)</li> </ul>
<b>컴퓨터 (20.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 센터, 서버 등 기업용 고사양 SSD 수요 지속으로 단가와 물량이 지속 상승하여 수출 증가</li> <li>* SSD 수출 증감률 (%): ('17.6) 28.1 → (7) 79.3 → (8) 57.6 → (9) 42.7</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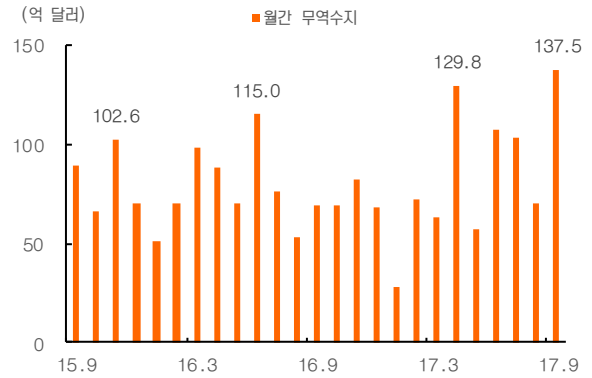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9월 수출입 동향 (잠정)' (2017.10.1), KB증권

그림 2. 9월 수출입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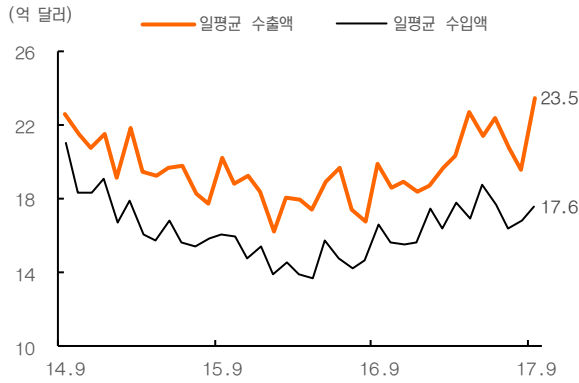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9월 수출입 동향 (잠정)' (2017.10.1), KB증권

그림 3. 9월 무역수지 137.5억 달러로 최대, 68개월 연속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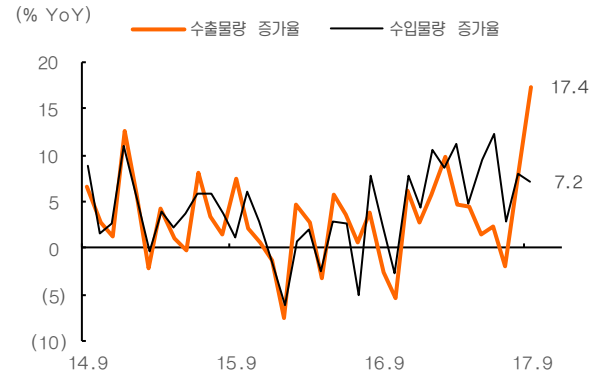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9월 수출입 동향 (잠정)' (2017.10.1), KB증권

그림 4. 일평균 수출액 23.5억 달러로 사상 처음 23억 달러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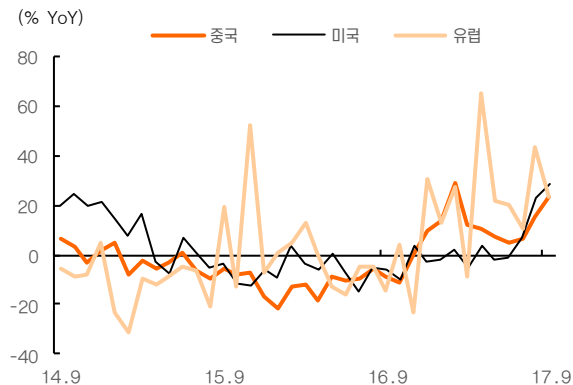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9월 수출입 동향 (잠정)' (2017.10.1), KB증권

그림 5. 9월 수출입 물량도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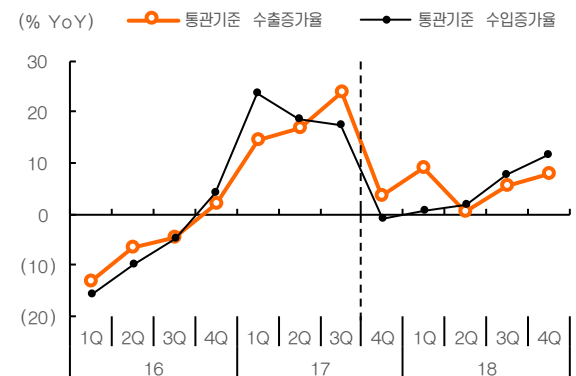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9월 수출입 동향 (잠정)' (2017.10.1), KB증권

그림 6.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지역 두 자릿수 수출 증가 지속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9월 수출입 동향 (잠정)' (2017.10.1), KB증권

그림 7. 10월 조업일수 감소, 4분기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 전망



자료: 무역협회, KB증권 전망

**투자자 고지사항**

-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